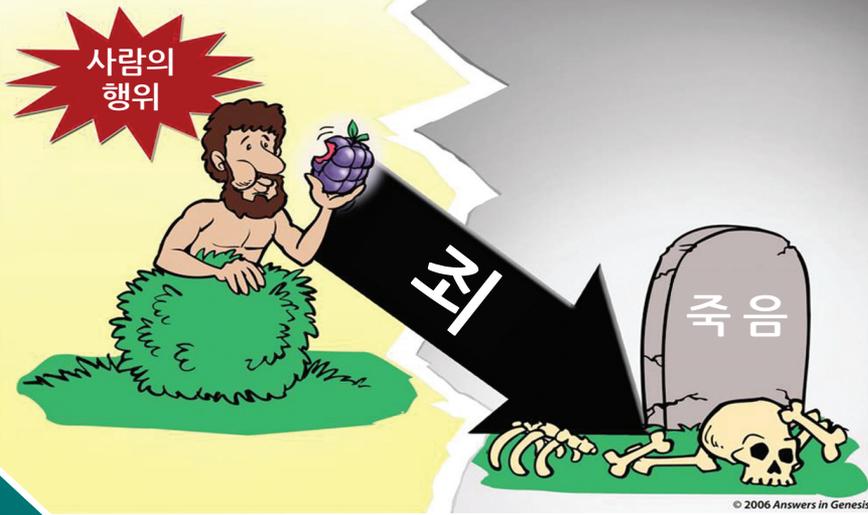


CREATION

TRUTH

6일 창조

사람의
행위



© 2006 Answers in Genesis

창세기를 통한 복음2

마지막 아담

유학시절 창조과학을 만나며 한창 주위 유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할 때 막혔던 구절이 하나 기억나는데 바로 “마지막 아담”이다.

“첫 사람 아담(the first man Adam)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the last Adam)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누구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굳이 아담이라고 하셨을까? 또한 마지막이란 표현은 무엇인가? 당시에 어렵기도 했지만 의미를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뻐는지.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해 “마지막 아담”은 이 세상의 역사와 복음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구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이 세상의 역사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 아담”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첫 사람 아담’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6, 27). 그는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던”(창 1:31) 죄 없이 창조된 인류의 첫 조상이다(눅 3:38; 행 17:26). 그러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죄의 대가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창 2:17).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에(창 5:3),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인이기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요 1:3; 골 1:16). 이분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다(행 3:14). 또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며, 우리는 특별히 이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롬 8:29). 이분은 우주를 초월하신 창조주지만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삼일 후에 부활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며, 아담도 죄 없이 거룩하게 태어났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다. 이때 외에는 어떤 경우도 죄 없던 적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시 51:5), 우리의 조상을 소급해 올라가면 죄 없던 때를 만나는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이다. 이 둘 가운데 첫 사람은 아담이다. 첫 사람 아담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으셨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고전 15:4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흠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아담은 흠으로 지음바되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이 땅에 오셔도 거룩함을 유지하셨다. 아담은 죄 대가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란 의미는 정리되어 간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범죄하기 이전인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형상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죄의 대가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됨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요 1:29; 롬 5:18; 히 10:14).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의 아담이 필요 없으므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이다(히 10:18).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롬 5:14)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표현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귀하지만 죄의 대가로 죽게 된 달레마를 하나님 자신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해결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을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자신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것이다.

과연 만약 첫 아담에 대한 이해 없이 마지막 아담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첫 아담이 불분명한 만큼 마지막 아담도 애매하게 된다. 과연 성경 그대로 첫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오신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릴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가? 당연히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사실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 입증하신 것이다(롬 5:8; 엡 1:4).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보며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마음에 "첫 사람 아담"이 확실치 않은 것이다. 죄 없던 아담의 첫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가 사실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화론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점점 완성되는 인류의 진화 단계가 마음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 증거들이 첫 아담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이 등장하며 창세기와 진화과정을 함께 믿으려는 수많은 타협이론들이 이어져왔다.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께서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 아담을 창조했다는 점진적 창조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멸종을 일으키실 때마다 격변이 있었다는 다중격변론, 더 나아가 창세기 1-11장을 시나 설화로 취급하는 구조가설 등... 그러나 창세기 기록 그대로 말하지 않는 어떤 이론도 '첫 사람 아담'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위의 이론들은 모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멸종이라는 언어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아담의 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세상을 퇴색시킴으로 하늘나라 소망도 막연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 역사는 하나다. 타협이론이 만든 과정은 이 세상에 없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완전히 훼손시키며, 진짜 존재했던 그분의 형상 첫 사람 아담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다. 위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변명할지 몰라도, 또한 자신이 만든 이론으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 타협이

론을 받아들였던 유럽과 미국의 예배당은 빠르게 비워졌으며, 복음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데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 그대로 존재했던 첫 사람 아담이 사라졌기 때문이

이어지는 글은 13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원숭이와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보면 ‘원숭이’가 나오는 데 솔로몬 시대에 수입품들 중에 하나였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삼 년에 한 번 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열왕기상 10:22). 여기에 나오는 원숭이는 꼬리가 달린 동물이 아니라 꼬리가 없는 원숭이였다. 일반적으로 꼬리가 달린 원숭이는

monkey라고 부르고, 침팬지나 고릴라같이 꼬리가 없는 원숭이들을 apes라고 한다. 과거에 생물학자들은 apes 범주에 사람을 넣지 않았다. 그런데 진화론이 팽배해지면서 이제는 사람까지 apes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영장류란 앞에 언급한 두 종류의 원숭이를 모두 포함할 뿐 아니라 사람과 여우원숭이 등 다른 동물들을 포함하는 더 큰 범위의 목(order) 이름으로, 다섯 개의 구부릴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진 동물이란 뜻이다.)

현대 진화론자들은 원숭이(monkey 혹은 ape)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ape 비슷한 동물이 apes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진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 계열과 침팬지 계열이 600만년 전에 분리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 계열은 아르디(Ardipithecus, 440만년 전), 래틀리 발자국의 주인공(Australopithecus, 390만년 전), 루시(Australopithecus?, 320만년 전), Homo habilis (220만년 전), Homo erectus (180만년 전) 등의 증거를 남기며 진화되어 10만년 전 혹은 20만년 전에 드디어 Homo sapiens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류의 수많은 화석 증거들이 진화론자들 스스로의 손으로 거의 다 이미 폐기 되었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류의 진화 증거로 제시 되었던 침팬지와 사람의 DNA 비교 연구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비양심적인 주장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2003년 5월 19일자 인터넷 판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지에는 “침팬지는 사람, 유전자 연구가 말하고 있다”라는 눈이 휘둥그레질 기사가 났다. 그 내용을 보면, 권위 있는 과학 연구 논

문지 PNAS (June 10, 2003 vol. 100, 7181-7188)에 의하면 사람과 침팬지의 중요한 부위의 유전자가 99.4%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과 침팬지를 같은 속(genus)인 Homo 속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침팬지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것이 논쟁이 되지 않을까 염려까지 하고 있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5% 이상 99.4%까지 아주 유사하다는 연구 보고들은 1975년부터 나왔고 2003년 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 되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그 연구방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그들이 발표한 높은 정도의 DNA 유사성은 무작위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윈주의(진화론)에 맞도록 샘플을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선택하여 비교한 것이었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 데이터가 서로 크게 다른 경우에는 그 자료는 빼버리거나 조작하거나 아예 통계를 낼 때에 사용하지 않았다(배경 그림 참조). 이 밖에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묘한 과정을 거쳐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8% 비슷하다는 결론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이 연구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이 데이터를 버리거나 제외한 것들을 알아 차릴 수 있고 많은 경우 그 연구자들도 걸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매스컴 등을 통해 일반에 전달 되는 것은 진화론에 맞는 결론들뿐이었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진화론에 맞추어 다듬어 진 거짓 결과들은 10여 년 이상 사람과 침팬지가 별 차이가 없는 진화된 동물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발표한 똑 같은 부분의 DNA 기초자료를 통하여 정직하게 사람과 침팬지의 DNA를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은 65%도 같지가 않다. 지금까지 발표 된 여러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하여 평균해 보면 최대87%까지 그러나 81%이상 동일할 것 같지 않다(<http://creation.com/human-chimp-dna-similarity-re-evaluated>).

원숭이는 사람의 기원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동물이 되었다. 그만큼 진화론의 영향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 미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인류의 기원과 원숭이가 밀접하게 연결된 이유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 할 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미신적인 정보가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의외로 많다. 진화론 자체가 거짓이고 진화를 믿고 소망하는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을 통하여, 곧 들통 나게 될 거짓 자료들까지 동원하여, 사람이 진화된 동물임을 광고하는 세상이 되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함 없는 진리인 성경은 선언하였다. 사람은 여러 동물들중에 하나가 아니라, 침팬지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창세기 1:26-28)으로 창조 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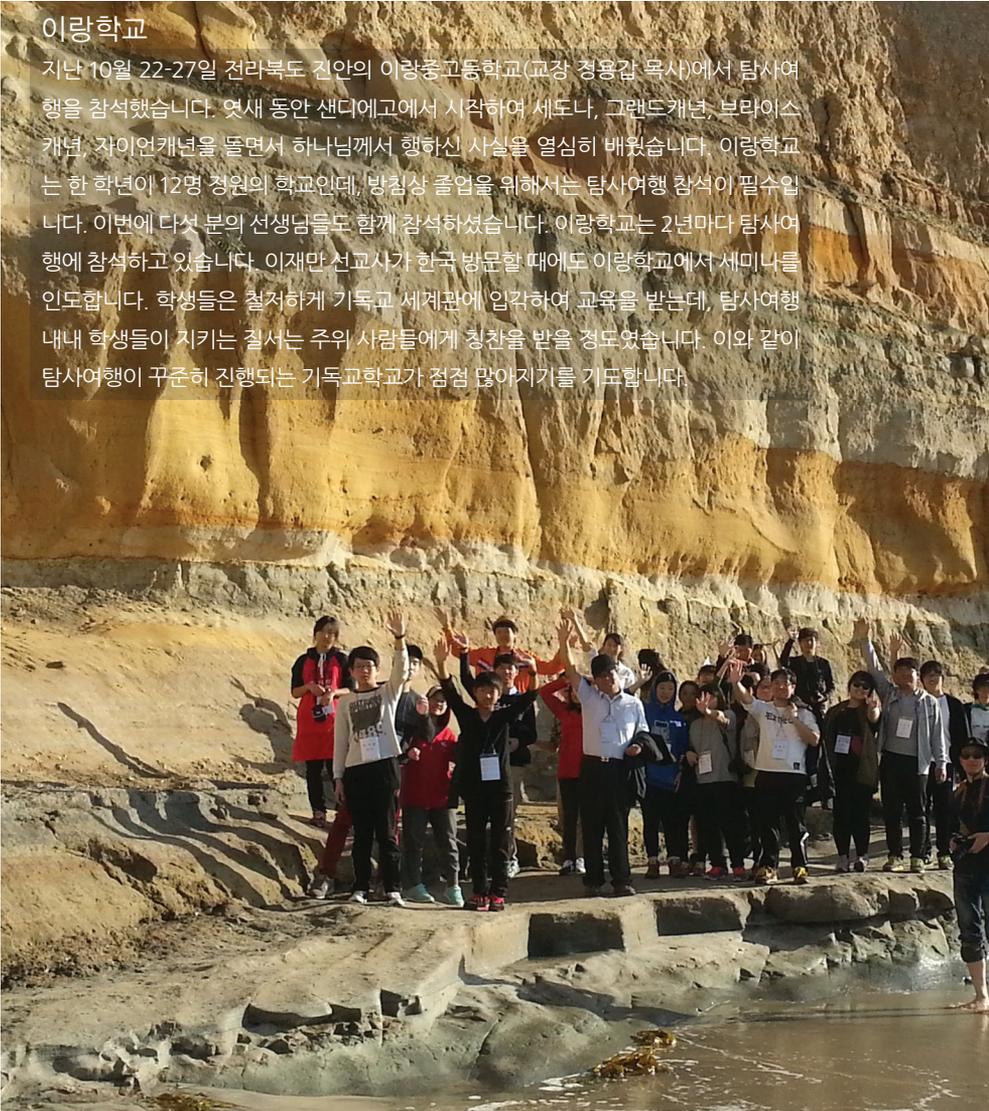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랑학교

지난 10월 22-27일 전라북도 진안의 이랑중고등학교(교장 경용갑 목사)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옛새 동안 샌디에고에서 시작하여 세도나,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랑학교는 한 학년에 12명 정도의 학교인데, 방침상 졸업을 위해서는 탐사여행 참석이 필수입니다. 이번에 다섯 분의 선생님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랑학교는 2년마다 탐사여행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젠만 선교사가 한국 방문할 때에도 이랑학교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학생들은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을 받는데, 탐사여행 내내 학생들이 지키는 질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탐사여행이 꾸준히 진행되는 기독교학교가 점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10월 28일-11월 1일 한국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2회씩 탐사여행을 모집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탐사여행이 모집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7일간 빙하시대까지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뉴욕 퀸즈한인교회

지난 11월 5-7일 뉴욕의 퀸즈한인교회(담임목사 이규섭)가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을 순회하며 특별히 노아홍수의 지질학적 증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변화된 부분과 탐사여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간증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탐사여행에 참석할 것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2세들 탐사여행도 계획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뉴욕 지역에서 창조과학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데, 이번 퀸즈한인교회의 탐사여행이 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

지난 10월 20일 포모나인랜드교회(담임목사 박신철)가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을 통해 창조 사실과 지구 역사가운데 들어 있는 복음의 필요성과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재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를 오랫동안 후원하며 사용하고 있는 인랜드교회는 내년 4월에 그랜드캐년 창조과학탐사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

지난 5월 메모리얼데이에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마친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유진소)에서 11월 10일과 17일 토요일(9:30am-4:30pm)에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와 최우성 박사의 인도로 총 8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15차 유학생 탐사여행 신청

2013년 1월 2-4일(수-금) 2박 3일간의 유학생/신학생 탐사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와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학생과 신학생 부

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착순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호 Creation Truth를 참조 하시거나 www.HisArk.com의 ACT Event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213-381-1390



제 2기 ITCM-1 필드트립

제 4기 ITCM-1 신청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8주간의 ITCM-1(창조과학집중훈련-1)에 참석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ITCM-1은 성경공부, 창조과학 서적 읽기와 토론, 창조과학 강의, field trip 등 8 주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이면 전공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명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isArk.com의 “창조사역집중훈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ITCM-1 4기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어두운 세상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석,

노아홍수의 지구 외적 원인이었을까?

성경은 창세기 7:11절에서 노아시대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물리적인 1차적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 번째가 “모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 때는 지표 아래에 보관 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물과 마그마가 지표로 나왔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엄청난 비가 지구를 후려치듯이 내렸을 것이다. 이 “샘들”과 “창들”은 150일간 열려 있었는데 후에 하나님께서 닫으셨다(창세기 8:2-3). 이 지질학적인 과정의 결과들은 대륙에 걸쳐 있는 엄청난 퇴적암과 화산성 암석들에서 볼 수 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지질학적인 과정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지구 표면의 운석을 크게 보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참담한 과거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하다.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홍수 초기에 운석의 폭격으로 충돌한 자국인 운석공들이 암석에 보존되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운석공은 아리조나에 있는 배린저 운석공(Barringer Meteorite Crater)이다. 운석공의 경계가 별로 침식되지 않고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 운석이 홍수 후기에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운석공들은 너무 커

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높은 곳에서 지도상으로는 볼 수 있을 정도다(표). 가장 큰 운석공은 지표를 측정해서 알 수 있는데 땅 속으로 구멍을 뚫어 운석 조각들을 찾아낸다. 땅 속에 들어 있는 운석공들은 노아홍수의 퇴적물로 덮여 있는데 홍수 중간에 운석이 떨어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달을 보면 마치 마마 자국처럼 운석공들로 덮여 있는데 이런 현상은 수성, 금성, 화성에서도 볼 수 있다. 행성 전체가 거의 기체로 되어 있는 외행성들은 그런 운석의 폭격 흔적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행성들을 돌고 있는 달들에는 많은 운석공들을 보여주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노아홍수 기간에 태양계가 우주의 “더러운” 곳이나 소행성으로 가득한 곳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왔다.

창조 주간에 그런 충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홍수 퇴적물 안에 있는 운석공들은 운석들이 홍수 기간에 떨어졌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사실은 노아홍수의 공포에 더 큰 공포를 더하고 있다. 충격 그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파괴를 야기 했을 것이고 초대형 지진은 지각을 흔들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높은 쓰나미가 돌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폭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그 대홍수가 시작되어 그 “깊음의 샘들”이 열리도록 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현재에 묶여 있으므로 그런 대 격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재구성 할 수도 없다. 단지 그 결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분의 대단한 능력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뿐이다.

Dr. John D. Morris, ICR President

노아홍수 기간에 떨어진 지표면 바로 아래 운석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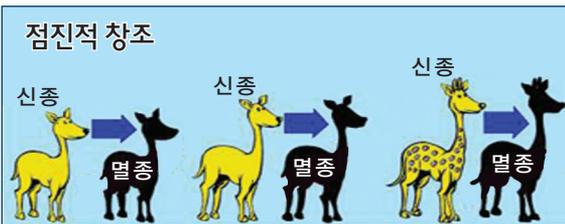
이름/위치	운석공 지름 (km)	운석 지름 (km)
Ishim/Kazakhstan	350	20.8
Aredefort/South Africa	140	7.4
Sudbury/Ontario, Canada	140	7.4
Popigia/Tayrmyr, Siberia	100	5.0
Puchezh-Katunk, Russia	80	3.9
Manicouagan/Quebec, Canada	70	3.4
Siljan, Sweden	52	2.4
Kara/Nenetsia, Russia	50	2.3
Charlevoix/Quebec, Canada	46	2.1
Araguainha/Dome, Brazil	40	1.8



점진적 창조는 무엇이 문제인가?(1)

앞 단원에서 보았듯이, 우리 문화에 진화론적 사고에 의한 충격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과학”과 타협하였으며 성경에 수백만 년의 기간을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들이 간격이론, 날-시대론, 유신론적 진화론 그리고 구조가설 등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상당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진화론의 긴 시간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최근에 가장 심각한 움직임이 바로 “점진적 창조”라고 불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휴 로스(Hugh Ross) 박사가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다. 이 단원은 성경과 과학을 통해 로스 박사의 주장을 비교할 것이며 오늘날의 과학 이론으로 성경을 꿰어 맞추는 시도의 위험성을 보여 줄 것이다.

진화론적 문화와 타협했던 결과는 “날-시대(Day-Age)”이론이나 “점진적 창조(Progressive Creation)”이라고 불리는 창조 견해다. 이 견해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과거 수년 동안 널리 수용되어 왔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천문학자인 휴 로스 박사의 출판과 강연에서 비롯되었다 - 그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손꼽는 점진적 창조론자일 것이다.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로스 박사의 견해는 잘 알려진 많은 기독교 리더들, 교회들,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들에게 쉽게 수용되었다. 로스 박사의 가르침은 “창조론자”란 용어를 사용하



야 할 것인지에 대한 로스 박사의 견해는 잘 알려진 많은 기독교 리더들, 교회들,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들에게 쉽게 수용되었다. 로스 박사의 가르침은 “창조론자”란 용어를 사용하

면서도, 창조의 6일 간의 문자적인 하루를 거부하고 수십억 년을 수용하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학문적인 수준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학문적인 체면을 지킬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이전에 점진적 창조를 감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한 후에는 이 견해가 얼마나 파산상태이지를 알아차리고 그들의 지지를 철회해 버렸다.

이 단원에서는 점진적 창조의 일부가 성경과 바른 과학의 조명 하에 조사될 것이다. 더 많은 충분한 분석을 원한다면, 조나단 사파티(Jonathan Sarfati) 박사의 “타협에 대한 반박(Refuting Compromise)”을 참고하기 바란다.

점진적 창조 내용의 요약

- 우주는 빅뱅으로 약 160억년 전에 생겨났다.
- 창조의 하루들은 수백만년에서 수십억년의 기간이다.
- 수백만년에 걸쳐 하나님은 다른 종들이 멸종되는 동안 새로운 종들을 창조하였다.
- 자연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하다.
- 죽음, 피흘림, 질병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전부터 존재하였다.
-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행동하고 인간을 닮은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던) 생물들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
- 창세기 홍수는 지역적 홍수였다.

KEN HAM & DR. TERRY MORTENSON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Answers in Genesis-US (2005)

3쪽(마지막 아담)에서 이어지는 글

다.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의 이해 없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첫 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이해함으로 다음 말씀들이 분명히 가슴에 와 닿는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롬 5:15),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9).

“첫 사람 아담”을 회복하자. 그리고 사랑의 확증되신 귀하신 “마지막 아담”을 분명하게 전수하자.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확증된 사랑을 감동으로 전달하자. 마지막 아담을 도구로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이 사실 됨을 알리는 도구로 삼자. -01재민(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지구총교회 탐사여행 간증문

8/13-8/16, 2012

처음이 좋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창조과학탐사여행 덕분에 처음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박순정 목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박민철(교 2)

다시 오고 싶습니다. - 김명식(교 2)

주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 윤준혁(중 3)

성경이 사실이라는 생각으로 저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성경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박세한(중 3)

이제만선교사님, 완전 감사드립니다. - 김예림(중 3)

소름끼치도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하게 되는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 김지아(중 3)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의문들이 시원스럽게 해결 되었습니다. ... 성경의 사실들을 전해주고 싶은 아주 유익한 탐사여행이었습니다. - 김우일(교 1)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 된 것처럼 배우고, 인터넷에서도 창조론이 거짓이고, 진화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이 거짓인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 김동환(교 1)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역사적 중요한 일들을 해낸 과학자들입니다. ... 나도 그들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려 합니다. - 송은유(교 1)

노아 홍수의 전기와 후기로 생긴 그랜드캐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지영(중 2)

진화론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현섭(중 2)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배웠습니다. - 최시영(중 3)

통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박의성(중 3)

창조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 김료휘(중 3)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졌습니다. - 고유연(중 1)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탐사여행이 정말 좋았습니다. - 오준수(중 3)

뭐 이런걸 강의를 들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습니다. ...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김해림(중 2)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 유동혁(중 3)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항상 계셔 주신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도 예전이랑 다른 마음으로 좀 더 경건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혜인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내 신앙도 더 확실히 졌습니다. - 이정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오고 싶습니다. - 이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박연선

매 주일마다 끌려오듯 교회에 겨우 참석 했었고 ... 내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성경의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진화론은 거짓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박주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나에게 성경책을 물려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조동희(동안교회)

(믿지 않던 학생들이) 한 명씩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너무 벅차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과 성경이 사실이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도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 정현연 교사(고창여중/안디옥교회)

하나님이라는 뜻밖에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생각 이상의 결실을 얻어 가지고 가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 전소영(고창여중 2)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수민(고창여중 2)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진(고창여중 2)

처음 강의를 듣게 될 때는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미선(고창여중 2)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진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박종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 요약되지 않은 원문은 홈 페이지(www.hisark.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2/10-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대청)이재만
-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드림교회/한빛교회 EM) 김선욱

2013년

-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김선욱
- 1/2-4 유학생 탐사여행 (15차 유학생, 신학생) (이재만)
- 1/2-11 Worldmission Univ. 겨울특강(이재만, 최우성), CA
- 1/6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1/1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1/20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1/2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기감도봉지방교육부 비전트립) 이재만
- 1/27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1/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YWAM)이재만
- 1/31-2/3 창조과학 탐사여행 (Worship Leader) 이재만

- 2/6-9 빙하시대 탐사여행 (한국 CEO)이재만
- 2/15-17 오클라호마 노만 한인침례교회(이재만), OK
- 2/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이재만
- 2/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Worship Leader) 이재만

- 3/1-25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 3/2-3 이한교회 (이재만), 한국
- 3/9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한국
- 3/11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한국
- 3/12 전주대학교
- 3/13 한동대학교
- 3/16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이재만), 한국
- 3/19 전주대학교
- 3/20 한동대학교
- 3/23-24 명동교회(이배난), 한국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